

절세의 위인들의 구상을 꽃피우며 흥하는 청산리

강서구역 3종3대혁명붉은기 청산협동농장을 돌아보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창조된 력사의 땅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이 사회주의농촌체제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 들고 전국의 앞장에서 내달리며 새로운 전변의 모습을 펼쳐가고있다.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다른 고장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치지 않고있다. 우리는 비약하는 청산리의 모습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전 이곳을 찾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농촌체제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여 새 세기 농촌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고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청산리를 찾고보니 소문 그대로였다.

50년전 사회주의농촌체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내달려 1970년대에 김일성훈장과 첫 3대혁명붉은기,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2중, 3중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은 남다른 영광을 지닌 청산리였다.

역사의 교장은 오늘도 누구나 부러워하는 열매들을 주렁주렁 흥하는 청산리로 그 이름을 떨치고있다. 그 비결을 묻는 우리에게 청산리사람들은 긍지높이 말하였다.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도업적을 빛내이고 온 농장이 흥하게 됩니다.》

우리는 농장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말이 과학적이고 진리라는것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새겨안았다.

해진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확신있게 말 하는것이였다.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온 나라를 돌보시는 그 바쁜 속에서도 평양 남새과학연구소와 안주시 송학협동농장,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남새은실들,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와 여러 버섯공장을 찾으면서도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도업적을 빛내이

문명국건설의 경마루를 향해 내딛는 농촌

우리가 만나본 청산리사람들은 남달랐다. 비록 얼굴은 검게 타고 작업복을 입었어도 자신심에 넘쳐있으며 하는 말들은 모두 세말이 배겨있었다.

그것이 무엇때문인지 알고싶어 농장 기사장에게 물었다니 그는 확신에 넘쳐 말하였다. 《대학공부를 하였기때문입니다. 농장에는 현재 250여명의 기사를 비롯한 많은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다 우리 수령님 언덕, 우리 장군님 언덕입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한 다층건물을 가리키며 청산농업대학이라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랑속에 생겨난 일하면서 배우는 저 대학에서 수많은 농장원들이 기사로 자라났다고 자랑하였다.

대학을 찾은 우리는 부학장으로부러 청산리당 비서도 이 대학 1기 졸업생이고 작업반장급인 이상 일군들 대다수가 청산농업대학 졸업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농장대학!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은총속에 대학의 문을 연 그날부터 30여년세월이 흐른 오늘 그 위력을 더욱 떨치고있는 배운터였다.

청산리는 이처럼 많은 과학기술인재들을 가지고있기에 농촌경리의 정보화실현에서 전국의 앞장에 설수 있었다. 전국적인 농기계 전시회에서 1등을 한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나 순위권에 들었으며 제2차 중앙과학기술추진에 참가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는 농장의 농업과학기술보급실에서 더 큰 감흥을 받았다. 수십대의 컴퓨터와 현대적인 실험 및 분석설비, 기구를 갖춘 보급실에서는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평양에 가지 않고도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인민대학습당과 중앙과학기술총보사를 비롯한 수십개 단위들과 연결된 컴퓨터망을 통하여 현대과학기술을 배우고있었다. 여기에 맞게 정보부원, 과학기술보급실장 등 새 직무들이 생겨났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전민과학 기술사회주의의 구호를 높이 들고 현대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며 과학기술성공과로 앞장서는 청산리사람들의 애국열정의 남달랐다.

우리는 이것을 해마다 2차에 걸쳐 진행 하고있는 문답식학습경연에서도 찾아볼수 있었다. 농장에서는 농산, 남새, 축산, 농기계부문을 교과 문답식경연을 조직하고있는데 농장원들 누구나가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배우기 위해 높은 열의를 가지고 참가하고있었다. 우리와 만난 작업반장들은 농장원들이 문답식학습경연에서 1등을 할수 있도록 출퇴근길에서도 책을 놓지 못하

살터미가 높아질수록 커가는 기쁨

경쾌하게 울리는 관현악《청산벌에 풍년이 왔네》의 선율이 우리의 귀를 즐겁게 계속 하였다. 먼저 관현악회에 들린 우리는 뜻밖의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 50년동안 일목생산계획을 한해도 빠짐없이 넘쳐 수행하여 수십만의 일목들을 생산하면서 올해는 전체보다 비약할것에 예견.

고난의 시기부터는 청산리라고 남보다 비로와 연유, 박박을 더 많이 받아 농사를 짓는것이 아니었다. 땅도 재벌보다 부식질이 적고 모래기가 많았다. 해가 갈수록 이삭기후현상이 심해졌고 더위기 올때에는 100년대 왕가들이 즐겼었다. 그렇다만 해마다 흉년을 몰고오는 비결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우리는 그 대답을 찾기 위해 작업반들을 돌아보기로 하였다. 온 나라에 소문난 취득제 3작업반의 농사는 보나마나라는 생각이 든 우리는 제일 구석진 곳에 있는 제9작업반에 먼저 들리었다.

이 작업반은 토심이 얇고 경사지포전들이 대부분인데다가 3단양수를 해야만 물을 낼수 있는 매우 불리한 단위였다. 하지만 버가울을 한 포전의 버구루터기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정보당 소출이 대단할것이라고 예견해주고있었다.

《우리도 놀랐습니다. 평뜨기를 할수록 정보당 10이 넘는 포전들이 수두룩이 나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작업반마을의 로인들은 올해가 버, 강방이농사에서 최고였다고 자랑하고있습니까.》

작업반장 리정령동무는 이렇게 말머리를 떼면서 이미 강방이와 풍수확을 끝내는 차례로 집집마다 분배해주었다고 자랑하였다.

마을에 들어선 우리는 풍을 리는 소리가 요란한 집부터 찾았다. 그 집로인들은 아들, 며느리가 분조농사경쟁에서 3등, 4등을 하여 강방이와 풍을 900kg 갖는데 이제 버까지 분배받으면 쌀창고가 모자랄것이라고 하면서 환하게 웃었다.

쌀창고이면 고기풍년이 들기마련이어서 우리는 구하여 가정축산, 작업반축산실태를 알리고 하지 않았다.

가슴호트한 이런 현실을 우리는 다른 작업반들에서도 목격할수 있었다. 가는 곳마다

당의 뜻대로 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맞게 농업 생산의 과학화, 현대화실현에서 큰걸음을 내걸고있는 청산리였다.

청산리혁명사적관의 벽면을 짝 채우고있는 이런 자료가 떠올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85차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25차때,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2차때나 청산리를 현지지도하신 뜻깊은 년월일들이.

력사의 이 갈피속에는 보름동안이나 묵으면서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해주신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로고도, 청산협동농장에서 대풍을 이룩하여야 전국적으로 대풍을 이룩할수 있다고 가르쳐주시며 전국의 앞장에 서도록 이끌어주신 우리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도, 농사를 잘 지어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려고 고구려주신 김정숙어머님의 크나큰 믿음도 새겨져있었다.

백두산3대장군의 승고한 넋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땅 청산리였다.

가슴이 뜨겁게 젖어있었다.

《우리 청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백두산3대장군의 영도업적을 쉼없이 물려내어가고있는것도, 농촌경리의 정보화실현에서 앞장서나가고있는것도 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영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습니다.》

관리위원장 윤준화동무의 젖어드는 목소리였다.

어찌 그렇지 않랴. 영도업적대위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본보기가 되고 힘을 주신분도, 계획으로 진행단위를 창조해야 한다고 일깨워주신분도, 뜻깊은 올해의 첫 대회로 전국농업부문보장대회들을 마련 해주시고 역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시어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진로를 밝혀주신분도, 농업전진을 사회주의농촌체제의 제1대제 1선창조로 내세워주신분도 우리의 영도하는 원수님이다.

그렇다. 청산리사람들은 어제도 오늘도 당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 때 살터미가 높아질수 있다는 신념을 안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위원의 앞장에서 달리고 있었다.

온실남새, 버섯재배열풍속에 늘어나는 살림

최근년간 청산리로는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그들이 제일 관심하는 문제중의 하나가 온실남새, 버섯재배방법과 기술이다. 그만큼 청산리사람들의 온실남새, 버섯재배방법이 현실성있고 기술이 높기때문이다.

청산리 소재지에는 흰 비닐박막을 씌운 4동의 온실들과 새로 건설한 덩치큰 온실이 있다.

사실 우리는 이 온실들에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수준이 다른 농장들과 엇비슷할것이라고 짐작하였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한동이 880㎡ 된다는 이 온실들에서는 각종 남새가 한창 자라고있었다. 제부름 짝 채우는 싱그러운 남새항기를 한껏 들이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온실책임자 김은순동무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경험을 배우고있다. 4동의 온실들에서만도 한해에 오이, 도마도, 가지, 양배추, 배추, 시금치, 과 등 각종 남새를 70여이나 생산하고있다. 1년동안 땅을 비우지 않고 남새농사를 지어 야외에서보다 정보당 3배의 리득을 보고있다. 찾아오는 사람마다 부러워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당에서 하라는대로 하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온실의 덕을 크게 보면서 다시금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1,000㎡짜리 남새온실을 또 건설하였는데 리소세지의 남새온실면적만 해도 거의 5,000㎡나 됩니다.》

우리는 1,000㎡짜리 남새온실에도 둘러보았다. 수령령도 열린 수박을, 항기들은 참외를 보고 또 보느라니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는것만 같았다.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현실에서 직접 목격하게 된 우리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좋다는것이 제논으로 확인되면 시키지

양배추, 배추, 시금치, 과 등 각종 남새를 70여이나 생산하고있다. 1년동안 땅을 비우지 않고 남새농사를 지어 야외에서보다 정보당 3배의 리득을 보고있다. 찾아오는 사람마다 부러워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당에서 하라는대로 하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온실의 덕을 크게 보면서 다시금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1,000㎡짜리 남새온실을 또 건설하였는데 리소세지의 남새온실면적만 해도 거의 5,000㎡나 됩니다.》

우리는 1,000㎡짜리 남새온실에도 둘러보았다. 수령령도 열린 수박을, 항기들은 참외를 보고 또 보느라니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는것만 같았다.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현실에서 직접 목격하게 된 우리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좋다는것이 제논으로 확인되면 시키지



당 정책을 일관성 있게 관철하여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건축설계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요구

건설의 새로운 변명이 펼쳐지는 오늘 건축설계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은 건설부문에 있어 당과 수령의 영도업적을 꽃피우며 빛내이면서 선조전의 기상을 더 높이 떨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가 사회주의건축은 현실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입니다.》

주체의 사회주의건축은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가장 혁명적인 인민적인 건축이다. 우리 사회에서 인민대중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따라서 우리의 건축조사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찾지않고 그 그것을 현실로 꽃피우는 과정으로 일관되어야 한다.

주체건축창조의 력사는 인민위원의 승고한 뜻을 지니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영도밑에 이 땅우에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 자랑스러운 년대들로 이어지고있다.

보통 강개수 공사장에 이어 김일성종합대학과 만경대혁명학원교사, 동명양자구의 로동자거리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우자살림집 그리고 새로 개건되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전국의 곳곳에 현대적으로 꾸러지는 학생

파는 인연이 없다. 모든 설계자들은 건축설계창작에서 우리 식이 아닌 그 어떤 건축형식이나 내용도 단호히 배격하며 우리 인민의 의정속에 건설의 새로운 변명기에 마련되는 사랑의 결정체이다.

건설부문의 모든 설계자들은 문명한 레일을 앞당기는 건축창조적각성에 선 생명강조의 제각질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는 건축물들을 더 많이 설계창작하기 위한 투쟁에서 창조적제도와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중심의 건축설계창작에서 중요환경은 건축부문에 대한 우리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인민적인 건축발전이 살아야만 위대한 당의 영도업적이 있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현대성이 융화된 건축물들을 수없이 설계하고 일떠세울 풍부한 경험이 있다. 격동하는 오늘의 시대는 주제적건축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유일적영도밑에 인민대중중심의 건축설계를 능숙히 창작하는 실천가령의 설계자들을 부르짖고있다.

다른 나라의것을 모방하고 본따는것이 우리 식의 건축창작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축산기지

안변군 화산농장은 축산에 잘하는 단위로 소문났다. 작업반마다 푸르던 축산기지들이는 돼지, 염소, 닭, 개사리를 비롯한 집짐승들이 우글우글하다. 그중에서도 소재지에 건설된 축산기지는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만하다.

1000여㎡ 되는 축산기지는 돼지와 토끼, 닭, 오리, 개사리들이 득실거린다. 여기서 한해에 20여의 고기와 함께 많은 닭알이 생산되고있다. 이성과 이들이 먹이문제해결이자 축산물생산이랑을 명심하고 이익하게 노력한 결과이다. 지난 기간 농장에서는 집짐승

기르기에 비할바가 없다. 농장일군들은 여기에 만족할수 없었다. 일군들은 축산에서 먹이문제를 풀때 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집짐승기르기에 비할바가 없다. 더욱 높이기로 하였다.

그들은 큰단백질을 이용하면 알곡먹이를 적게 쓰면서 더 많은 닭알을 낳고 집짐승을 기를수 있다는것을 많이 이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그러하여 축산기지앞에 못을 만들고 500㎡짜리 큰단백질배양장을 꾸려놓았다.

큰단백질은 돼지뿐만 아니라 닭, 오리, 개사리 등 집짐승들의 좋은 먹이감으로 되고있다. 글 및 사인 본사기자 정성일



당의 전투적호소에 련대적혁신의 증산성으로 화답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비약하는 내 조국의 역센 기상인양 순천의 동력기지에 증산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친다. 전력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아안은 이곳 로동계급의 가슴마다에서 결사관철의 정신력이 활화산마냥 분출하고 전선시간과도 같이 흐르는 격동의 분과 초는 눈부신 혁신으로 충만하다.

완강한 실천과 높은 실적은 참된 총정이고 애국

전력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순천화력발전소 로동계급의 투쟁위훈

발전설비가동대수 종전보다 1.5배로 증가, 전력생산은 2배로 장성!
-9월 및 3. 4분기 인민경제계획 빛나게 완수, 1.0월에도 매일 계획보다 평균 수십만 kWh의 전력 더 생산!
발전소의 전투장마다에서 만사람의 가슴을 후련케 하는 혁신의 새 소식들이 연속 전해진다. 하다면 불꽃튀는 증산전투로 날이 저물고 자랑찬 위훈속에 새날이 밝은 이곳 화력발전기에서 나래지는 전력증산자들의 투쟁기공과 일본세는 과연 어떤것인가.

를 비롯하여 일군들부터가 결사의 각오와 의지를 안고 분발해나섰다. 지금이야말로 자기들이 지닌 당성, 혁명성을 조국과 인민앞에 검증받아야 할 때임을 심장으로 자각한 이들은 사무실을 박차고 현장으로 달려나가 보이라와 타인발전기앞에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기동성있게 하면서 로동자들과 함께 밤낮이 따로 없이 불꽃튀는 증산전투를 벌여왔다.

그 과정에 종전의 사고관념과 일본세에서부터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났다. 탄광들에서 캐낸 석탄을 철도운수부문에 실어다주던 방식이던 것이 옛날로 되돌아왔다. 일군들이 화력발전소를 맡은 탄광과 철도역들에 직접 나가 광막장에서 탄부들을 새로운 기적 위훈창조를 하도록 고무추동하고 기관차를 함께 타서 석탄운반전투를 줄기차게 벌여왔다. 발전소합모

부에서는 기술력량을 총동원하여 발전설비의 정비보수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 운영회로의 대수를 종전보다 1.5배로 높이고 하자 및 윤관개통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면서 발전기 대당출력을 1.2배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내밀었다.

증산의 큰 짐을 남먼저 우리 어깨에 걸머지자, 이런 비상한 자각을 안고 일군들이 앞장서 전투장마다에서 전격의 돌격을 힘있게 여겨왔었다.

지난 9월 15일, 발전소에는 뜻밖의 정황이 조성되었다. 취수구의 수문이 내려앉아 공업용수부족으로 발전설비들의 정상가동에 지장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긴급지령을 받은 보수단원 로동자들이 즉시 권양설비를 끌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동무들, 다 됐소. 어서 쇠바줄을 내려보내오!》

증산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당의 강령국가건설의열을 전력증산으로 역세계 받들어갈 로동계급의 불타는 총정과 애국적의열이 활화산마냥 분출해나갔다.

증산의 큰 짐을 남먼저 걸머지자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는데 대한 당의 의도를 받아안고 나이지속한 일군도, 나이런 로동자도 매일 말려진 생산과제를 수행했다고 만족하면서 마음의 무게를 낮추었던 자신들을 다잡았다.

피눈물의 언덕에서 다진 맹세를 목숨바쳐 지켜 전력증산으로 당을 만들자던 우리들이 아니라, 더 높은 증산실적으로 당의 부름에 호응하자. 우리의 심장을 통해 보내자, 리문경동무

적호소를 받아안은 그날부터 온군이 떨쳐나 선행부문 로동계급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힘있게 지원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도높이 벌여오고있다.

조직부와 선전선동부문을 비롯하여 군당위원회와 일군들이 수리할 열어진 산관에 남먼저 올라 동방나무운반전투를 치렬하게 벌여왔다. 이들은 련 3일동

자랑찬 실적으로 화답하리

들때를 더 바짝 쓰며 시간이 흐를수록 기세를 올렸다.

직장별 사회주의증산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2.4분기 전력생산과제를 빛나게 완수하는데 크게 기여한 열성생산직장전투원들이 승리는 우리의것이기에 생산동격전에 더욱 드센 박차를 가하였다. 타인발전기발전기직장에서 앞서가다시피한 기구수부문을 다듬어 증산열기를 불도가나마냥 부글부글 끓여버렸다. 하여 새로운 증산돌격전이 시작되어 5일만에 뒤떨어졌던 전력생산일정계획수행률을 훨씬 높이기 되었다고 9월 16일부터는 월초에 비해 매일 평균 전력생산은 2.2배로 늘어난 자랑찬 위훈을 창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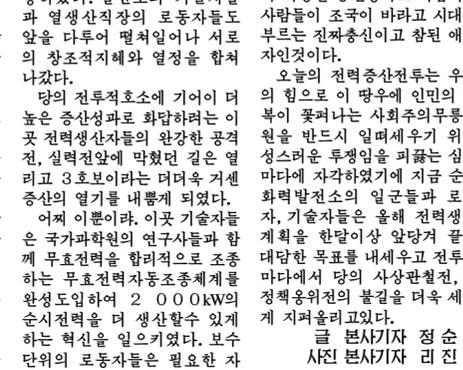
대상설비비공실적 3배

당의 전투적호소에 기어이 더 높은 증산성으로 화답하려는 이곳 전력증산자들의 완강한 공격전, 실력전앞에 막혔던 길은 열리고 3호보이러는 더더욱 거센 증산의 열기를 내뿜고 있었다.

혁명의 열기를 내뿜고

어찌 이뿐이라. 이곳 기술자들은 국가과학원의 연구사들과 함께 무조건력을 합력적으로 조종하는 무효전력자동조종체계를 완성도입하여 2000kW의 순시전력을 더 생산할수 있게 하는 혁신을 일구어냈다. 보수단원의 로동자들은 필요한 자

재들이 도착하는 즉시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보수전투를 치렬하게 벌였으로써 해당 발전설비보수를 일정보다 20일이상이나 앞당겨 끝내는 혁신을 일구어냈다. 전기라인보수직장의 기술자들은 합리적인 방법을 받아들여 철심분해와 절연작업을 질적으로 다그침으로써 10여대의 전동기들을 짧은 기간에 정상복구하여 발전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믿음직하게 보장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나라의 전력생산량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는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에 증산총동력으로 화답하며 북창창이 불타가나마냥 부글부글 끓여버리고 있다.

북창군당위원회의 일군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함께 지켜냈다. 이는 높은 공민적자각과 열렬한 애국심을 지니고 전력, 석탄, 철도운수부문을 물심장면으로 적극 도와나서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꾸준히 밀고나갔다. 군인민위원회에서는 로력동원대책을 실속있게 세우고 작업조직을 기동성있게 짜고들면서 화력발전소의 석탄차와 해당 철길구간의 정비보수, 탄광지원을 통해 크게 이바지하였다.

회력탄과 전력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늘일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아안은 그날부터 온군이 떨쳐나 선행부문 로동계급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힘있게 지원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도높이 벌여오고있다.

군에서는 철도지원사업도 톱이 크게 잘해나가고있다. 북선철길건설을 다그기기 위해 굴착설비들을 집중적으로 리용하여 장비타달과기를 진행하는 동시에 여기서 나오는 자갈, 모래를 철길로반성토에 효과적으로 리용하고있다. 김경수, 김만수 동무들 비롯한 일군들이 앞장서서 주민정치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려왔으며 많은 량의 파쇄과철분, 철길과착공들을 마련하여 탄광,

발전소 등에서도 화답하려는 이곳 전력증산자들의 완강한 공격전, 실력전앞에 막혔던 길은 열리고 3호보이러는 더더욱 거센 증산의 열기를 내뿜고 있었다.

어찌 이뿐이라. 이곳 기술자들은 국가과학원의 연구사들과 함께 무조건력을 합력적으로 조종하는 무효전력자동조종체계를 완성도입하여 2000kW의 순시전력을 더 생산할수 있게 하는 혁신을 일구어냈다. 보수단원의 로동자들은 필요한 자

재들이 도착하는 즉시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보수전투를 치렬하게 벌였으로써 해당 발전설비보수를 일정보다 20일이상이나 앞당겨 끝내는 혁신을 일구어냈다. 전기라인보수직장의 기술자들은 합리적인 방법을 받아들여 철심분해와 절연작업을 질적으로 다그침으로써 10여대의 전동기들을 짧은 기간에 정상복구하여 발전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믿음직하게 보장하였다.

생명선을 함께 지켜냈다는 자각안고

북창군 일군들과 근로자들

안 현신적인 로력투쟁을 벌려 많은 량의 동방나무를 마련하여 탄광들에 책임적으로 보내줄수 있도록 석탄증산에 적극 기여하였을뿐 아니라 매주마다 동방나무공기를 정상화하면서 이신적의 모범으로 탄광지원을 앞장서고있다.

이해 발맞추어 군안의 수많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성의껏 마련한 갖가지 후방물자들을 안고 발전소와 탄광들로 달려나가 자기들의 성실한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다.

석탄생산과 수송량이 늘어나는 데 맞게 군인민위원회와 녀맹위회의 일군들, 가두인민반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화력발전소의 석탄화차작업을 로력적으로 힘껏 도와주고있다. 이들은 주민다운 자각을 안고 집단적의열을 다그기기 위해 굴착설비들을 집중적으로 리용하여 장비타달과기를 진행하는 동시에 여기서 나오는 자갈, 모래를 철길로반성토에 효과적으로 리용하고있다. 김경수, 김만수 동무들 비롯한 일군들이 앞장서서 주민정치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려왔으며 많은 량의 파쇄과철분, 철길과착공들을 마련하여 탄광,

발전소 등에서도 화답하려는 이곳 전력증산자들의 완강한 공격전, 실력전앞에 막혔던 길은 열리고 3호보이러는 더더욱 거센 증산의 열기를 내뿜고 있었다.

어찌 이뿐이라. 이곳 기술자들은 국가과학원의 연구사들과 함께 무조건력을 합력적으로 조종하는 무효전력자동조종체계를 완성도입하여 2000kW의 순시전력을 더 생산할수 있게 하는 혁신을 일구어냈다. 보수단원의 로동자들은 필요한 자

재들이 도착하는 즉시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보수전투를 치렬하게 벌였으로써 해당 발전설비보수를 일정보다 20일이상이나 앞당겨 끝내는 혁신을 일구어냈다. 전기라인보수직장의 기술자들은 합리적인 방법을 받아들여 철심분해와 절연작업을 질적으로 다그침으로써 10여대의 전동기들을 짧은 기간에 정상복구하여 발전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믿음직하게 보장하였다.

회력탄과 전력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늘일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아안은 그날부터 온군이 떨쳐나 선행부문 로동계급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힘있게 지원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도높이 벌여오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로씨야원동발전상일행 경도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20일 로씨야원동발전상일행이 경도의 정

을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조로친선관계발전과 세계 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

없는 흥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사회의무장치로 제의 크나큰 혜택을 이 땅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명치료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행복한 삶을 누리려고한다. 얼마전에 본 사원집중앞으로 보내온 한홍의 편지도 사회주의보전제도의 따뜻한 품에 안겨사는 한없는 고마움에 대해 뜨겁게 전하고있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인 인민생활은 국가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인민적인 보건의료에서 뚜렷이 나타났고있습니다.》

보통강구역 보통강1동에서 살고있는 김경순할머니의 편지는 처음 이렇게 시작되고있다.

우리의 돌과구를 열어놓은 우리 선수들은 역속속공으로 득점 기회들을 마련하면서 공격속도를 높여나갔다.

성적혁신수가 경기시간 73분경 토한꼴을 넣음으로써 우리 팀은 5:0이라는 압도적인 점수차로 우즈베키스탄팀을 이겼다.

로씨야원동발전상일행 도착

조로정부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로씨야측위원장인 알렉산드르 갈루슈가인동방발전상과 일행이 20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리광군 대외경제성 부상과 알렉산드르 제보만 주조로씨야원동 특별전대사가 맞이하였다.

전대대표단이 20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제 나이 올해 74살입니다. 지난 9월말 조선적십자종합병원에 입원하여 눈수술을 받고 평생을 되찾은 환희를 안고 이 글을 씁니다. 나이가 든 탓인지 몇년전부터 눈이 부영해 보이며 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주위의 모든것이 캄캄하게만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여러 검사를 진행하고 저에게 눈수술을 받으려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틈타서라도 눈수술을 받겠습니다.》

《제 나이가 74살입니다. 지난 9월말 조선적십자종합병원에 입원하여 눈수술을 받고 평생을 되찾은 환희를 안고 이 글을 씁니다. 나이가 든 탓인지 몇년전부터 눈이 부영해 보이며 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주위의 모든것이 캄캄하게만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여러 검사를 진행하고 저에게 눈수술을 받으려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틈타서라도 눈수술을 받겠습니다.》

《제 나이가 74살입니다. 지난 9월말 조선적십자종합병원에 입원하여 눈수술을 받고 평생을 되찾은 환희를 안고 이 글을 씁니다. 나이가 든 탓인지 몇년전부터 눈이 부영해 보이며 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주위의 모든것이 캄캄하게만 하였습니다.》

네팔 박파루시천선대표단 귀국

람 마니 바파라이행정편을 단장으로 하는 네팔 박파루시

《제 나이가 74살입니다. 지난 9월말 조선적십자종합병원에 입원하여 눈수술을 받고 평생을 되찾은 환희를 안고 이 글을 씁니다. 나이가 든 탓인지 몇년전부터 눈이 부영해 보이며 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주위의 모든것이 캄캄하게만 하였습니다.》

